

01

## 지하철에서 편하게 책 반납하는 책누리 서비스

글/사진 조인정(도서관 소설기자단)



고양시에는 도서 대여와 문화 활동 뿐 아니라 편리한 도서이용제도가 많고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. 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책을 대여 후 보통은 도서관 앞에 비치된 도서무인반납기가 있어서 바로 반납을 한다. 하지만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면서 책을 읽을 때가 많아서 퇴근하면서 바로 책을 반납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지하철 반납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척 편리하다. 현재 <지하철 무인반납 서비스>는 화정역, 일산역, 백석역, 대화역, 원당역, 삼송역, 행신역, 주엽역에서 시행되고 있다. 아마도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.

### <지하철 도서반납함 이용 안내>

1. 투입구에 반납하실 책(부록포함)을 넣는다.
2. 고양시립도서관에서 대출한 책만 넣는다. (작은도서관 제외)  
- 아람누리, 마두, 백석, 한뫼, 대화, 풍동, 행신, 화정, 원당, 식사, 덕이, 신원, 삼송, 가좌, 주엽어린이, 행신어린이, 화정어린이도서관
3. 반납주의 : 지하철 반납함은 실시간 반납처리가 되지 않는다.  
- 바로 대출을 원하시는 분은 도서관으로 반납  
- 반납 후 홈페이지에서 반납내역을 반드시 확인

02

##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 체험 활동 아고나

글/사진 남선영(여성친화소설기자단)



‘아고나’라는 단체 이름은 ‘아이들과 함께하는 고양시 나들이’라는 뜻으로, 이 단체는 3가족이 모여 함께 문화 체험을 하고 즐거운 놀이도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.

‘아고나’를 만나 3가족 11명의 가족 구성원들을 살펴보니 고2 딸, 중3 아들, 6살 아들로 구성된 A가족과 고2 딸로 구성된 B가족 그리고 고2 아들로 이루어진 C가족 등이었다. 이들이 주로 한 활동은 무엇이 있었을까? 무엇보다 입시 부담에 억눌린 고2 자녀 3명을 중심으로 소통을 통해 부모 자녀 간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을 주로 했다. 특히 일산동구에 위치한 딸기농장 수확체험과 중남미문화원을 방문해 세계문화유산을 탐방한 일 등 내 고양 고양시를 알아 가며 학업에 지친 고2 학생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해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.

한 가족의 부모는 “고양시에 살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.”며 “일산 호수공원, 아람누리 공연장, 킨텍스 컨벤션 홀 등이 있어서 가까운 거리에서 가족들이 즐길 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. 게다가 이처럼 함께하는 육아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했다.”고 말했다.

03

## EM으로 참여하는 환경운동

글/사진 배운순(환경분야 소설기자단)



환경운동은 아주 쉽다. 덜 쓰고 덜 버리는 것이 기본, 한 단계 나아가 소비하되 친환경적인 소비로 전환하는 것이다. 그중 EM(유용 미생물)의 생활화가 바로 친환경적 소비다. 일상생활에서의 EM 사용은 수질 오염원을 초기 단계에서 줄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환경운동이다. EM 제품에는 발효액 말고도 비누, 치약, 화장품, 샴푸 등 셀 수 없이 많은 제품이 생산, 판매되고 있다. 빨래, 청소, 설거지 등 안 쓰이는 곳이 없는 EM을 구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소개한다.

‘고양하천네트워크’ 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환경 축제나, 아파트 단지와 역 주변 광장 등에서 수시로 펼쳐지는 환경 캠페인에 참여하면 사용설명서와 함께 EM 발효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. 또한 고양시청 및 각 구청과 주민자치센터(행정복지지원센터) 등 35개소에 EM 발효액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. 빈 페트병을 가져가셔서 필요한 만큼 받아 가면 되는데, 아쉽게도 지금은 겨울철이라 고양시청 문예회관 우측에 설치된 보온공급시설에서만 받을 수 있다. 주민센터로의 공급은 3월 초에 재개될 예정이다.

04

## 깨끗한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?

글/사진 박서정(복지나눔 소설기자)



지난 1월 10일(목) 10시 시청 평화누리실에서는 환경생태주민참여단(단장 구성진)의 1차 정기회의가 열렸다.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진행해 왔던 재활용 선별장 주변환경 개선 및 재활용 쓰레기통 표준화 사업에 대한 설문지를 조사했었고, 현장 설문 결과가 부서에 잘 전달되도록 했다.

또한 2018년 정책과제로 탄소포인트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등은 올해도 시민들과 함께 홍보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. 올해 새로운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좋은 생각들도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 달 논의해 보기로 했다.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부터 실행해 간다면 고양시 환경의 심각성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.

미세먼지가 가득한 요즘은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는 것도 행운처럼 느껴진다. 혼자서 자동차 타는 일 줄이기와 일회용 비닐과 플라스틱 제품 사용 줄이기 생활화로 맑은 하천이 흐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생태하천을 기대하며, 작은 실천으로 후손에게 돌려줄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데 힘을 모으는 환경생태주민참여단 단원들의 1년 활동을 응원한다.